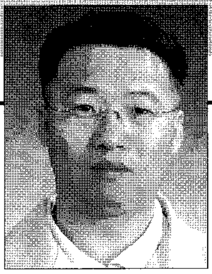

어려워요. 바이오가!

서 영 남 팀장 (산업자원부 생물산업 B2B 시범사업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한번쯤은 도전하고 싶은 분야, 때론 우리들에게 경이로운 기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분야가 바이오 즉 생물산업 분야일 것이다.

바이오테크 혁명(The coming biotech)이란 글을 쓴 리처드 올리버는 서문에 "산업시대엔 공간을, 정보시대에는 시간을 바이오시대엔 모든 물질을 정복 한다"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대표적 산업분야로 또한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를 바이오 산업이라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생적 의미에서의 바이오(생물산업)란 단어가 왠지 우리에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쳇말로 명품(Luxury)단어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고급스럽지만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어렴풋이 형상을 짐작키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DNA, 유전자 조작, 체세포 복제등 많은 부분이 일반 시사용어에 나타나지만 어쩐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원리나 과학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분야로 인식되어 버린 느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듯이 어렸을 때 기억되는 지식이 평생 자신을 지배하듯이 말이다.

나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연히 읽게되었던 소년잡지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타난 과학 상식이나 용어가 평생 나에게는 표준어처럼 따라 다녀 간혹 그러한것들이 현재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새로운 e-science 국가로 다가서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습관과 사물을 관찰하는 안목을 나타내어 일반인들이 바이오에 대한 더 높은 지식과 더 깊은 이해를 더하려는데 우선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바이오산업 역시 빠른 산업적 업적을 이루 수 있을거라 생각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란 산업에서 파생되는 용어가 어렵다는 선입감을 깨뜨릴 수 있게 참신한 구성과 알기 쉬운 표현을 산업내권위자나 전문가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일반인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인들이 바이오와 친숙할 수 있는 첩경은 바로 대중 매체(책, 방송, 신문...)에서 너무 어렵게 전문가적 접근을 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바이오 산업간의 공백을 메워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선적으로 급선무 일 것이다.

바이오 산업 육성 …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첩경

일반인들 이해도 높여야 기술발전 앞당겨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학자, 전문가들도 책임이 있으며 좀 더 일반인들이 바이오와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였듯이 향후, 21세기에 바이오 산업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부담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통한 일류국가로서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하여서는 거듭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여야 되며 이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저자 약력

- 케미즌닷컴 (바이오팀장)
- 켐크로스닷컴 (마켓개발팀장)
- LG화학
  . 특수영업팀장
  . LG 기술원 폴리올레핀 연구소
- 호남석유화학
  . 생산기술연구소
  · 수상내역
- IR-52 장영실상
- LG화학 기술연구대상
- LG 그룹 연구대상